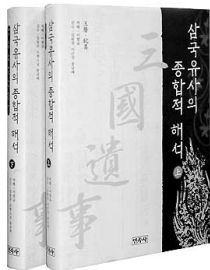


깊이 더 깊이 읽는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이범교 옮김 | 민족사
전2권 | 각권 2만5천원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대학생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 100선'과 실제 지난해 서울대 중앙도서관 인기 대출도서 목록 20선 사이의 공통 서적이 박경리의 <토지> 단 1권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고전'이 존재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준다.

'민족 제일의 고전'이라 일컬어지는 <삼국유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고려 충렬왕 때 보각국사(普覺國師) 일연이 저술한 이 책 제목은 줄줄 꿰고 있지만, 정작 그 책을 한 번이라도 펼쳐 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몇 페이지지만 읽다보면 어려운 한자투성이에 수시로 귀신이 등장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의 나열이라는 생각이 책장을 덮어버리기 쉽다.



이범교 옮김 '삼국유사'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사학자나 전문 번역가도 아닌 그가 최근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을 펴낸 이유는 상징과 함축에 담긴 의미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삼국유사> 관련 서적들에서 '결핍감'을 느낀 것도 바로 행간에 숨겨진 은유와 상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신이사(神異事)는 단순한 귀신의 이야기나 허무맹랑한 설화가 아니라 신라인들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며, 인간성의 모든 면을 투영한 것이며, 우리 민족이 획득한 지혜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 논문 2천여편 참조
학계 다양한 학술 각주**

**행간에 숨은 은유와 상징
새로운 시각서 입체적 분석**

1천100여쪽의 방대한 분량으로 <삼국유사>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한 이 책의 장점은 수많은 기존 학술들을 비교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은이는 <삼국유사> 번역을 위해 국회 도서관에서 관련 연구논문 2,000여 편을 복사해 참고했고 원문의 구두점은 최남선의 <증보삼국유사>를, 대본의 오탈자는 <이병도역주본>과 <리상호역주본>, <삼국유사증본>을 비롯해 10종에 가까운 판본을 일일이 대조했다. 또한 219개의 도표와 143개의 지도 및 그림, 332장의 사진을 실음으로써 <삼국유사>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경주 삼국유사 전경.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은 죽어서도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갑은사를 지었다고 전한다.

책에서는 우선 <삼국유사>의 전체적인 구성과 각 편의 체제를 분석한다. <삼국유사> 9개편의 구성과 이를 통해 일연 스님이 '불국토구현(佛國土具現)'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를 찾아본다. 예를 들어 삼국의 역사 발전과정과 불교의 전파 과정을 나란히 들으로써 불교의 흥망과 국가의 흥망이 일치한다는 의미가 함축되도록 엮었다는 것 등이 지은이의 주장이다. 단군신화 주몽신화 혁거세신화

연오랑세오녀 처용랑 등의 설화에서 그 속에 숨겨진 상징의 원형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은이는 머리말에서 "삼국유사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책을 펴냈다"며 "자료취합의 한계나 오류 등을 함께 짚어가며 <삼국유사>를 이해하는 유용한 자료집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권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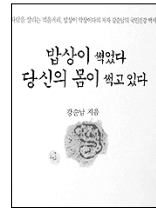
■ <허공의 북> (시공 스님 글/그림, 이화문화출판사, 1만원) = "들린다 듣는다/ 저 추위를 뚫는 울림/ 산골짜기 막힌 들문 여는 소리/ 겨울 잠에서 덜 깬 철 소녀/ 푸시시 일어나 생명의/ 근원으로 살며시 미소지으며/ 서서히 다가온다" ('일출' 전편 강원도 원주시 부처동에서 수행 중인 시공 스님의 시화집. 사계절을 주제로 '사원의 아침' '푸른 바닷가' '차공방' 등의 시와 그림을 묶었다.)



■ <앙코르와트·월남기다> (김용욱 지음, 통나무, 전2권, 각권9천9백원) = 철학자 도올 김용욱이 지난해 6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여행하고 쓴 일기를 묶은 책이다. 지은이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똑같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전혀 다른 세계관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한다. 캄보디아는 인도 문명의 압도적 영향 아래 자신의 문화를 꽃피워 브라만교와 불교의 '신화적' 세계를 구현한 반면, 베트남은 중국 문명의 지속적 유입으로 유교 문화를 체화함으로써 현실주의에 입각한 '인문적' 세계를 펼쳤다는 것이다.



■ <별상이 색었다 당신의 몸이 색고 있다> (강순남 지음, 소금나무, 1만2천원) = 자연식 연구가 강순남씨가 제안하는 '건강 밥상'. 강씨는 동물성 지방과 '5백(白) 식품'으로 불리는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흰조미료, 흰소금의 섭취를 줄이고 제철에 나는 과일과 야채를 곁집게 먹는 식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법광명이 영원하여 지이다
광덕 스님 지음
불광사회과학연구원

"모든 사람은 절대적이며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완성이 되고 더불어 이 사회를 지킬 수 있는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호법(護法)이 이 일을 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불교 대중포교에 한 획을

대중포교의 큰 별 광덕 스님 육성법어집

광덕 스님 법어를 모은 CD '호법편' (5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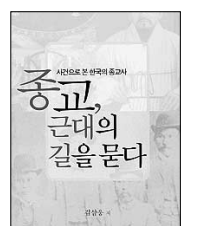
에서 불법을 흥포하기 위해 한평생 정진하셨다"며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전 사부대중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하자"고 말했다. (02)413-6060

우리 종교의 부끄러운 근대사

종교, 근대의 길을 묻다 김삼용 지음 | 인물과사상사 | 9천원

1922년 3월 26일, 서울 종로 거리에서 한 스님이 '불교계 대약망 강대면 명교축출'이라는 깃발을 들고 거리를 왕복했다. 불교유신회 회원들이 불교 개혁에 반대하고 친일매불에 앞장 선 수원 용주사 주지인 강대면에게 '명교축출(鳴鼓逐出,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쓴 북을 치며 몰아내니도록 하는 것)'이라는 별을 내린 것이다. '대한매일' 주필과 성균관대 교수를 역임한 김삼용 독립기념관장이 감춰지거나 잊혀졌던 근대 종교의 행적을 수면 위로 떠올렸다. 지난 2년 동안 '종교신론'에 연재했던 내용을 묶은 이 책에서는 국내의 혼란기였던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

기에 종교계에서 벌어진 여러 사건들의 이면사와 친일, 배교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실고 있다. 불교와 개신교, 가톨릭의 항일운동과 친일 행적뿐 아니라 증산교와 대종교, 원불교 등의 민족종교의 탄생, '천자(天子)'를 자처하며 새로운 국기를 세우고자 했던 보천교 등의 사교(邪敎)까지 천대만상의 종교를 만날 수 있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종교가 마주한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짚어 봄으로써 종교의 참 의미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작을수록 나누자, 숨통이 트인다

'현대 사찰건축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안성 도교인사 향적당. 복도를 지나 여러 번 발길을 꺾고서야 도착하는 향적당의 선방에는 좁은 모서리 창 이외에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이 없다. "어차피 선방이면 벽을 보나 창을 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선방에서 보는 것은 결국 풍경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건물을 설계한 이가 바로 건축가 이일훈이다. 천주교 '자비의 침묵 수도원'과 '하늘담은 성당' 등의 종교 건축을 설계하기도 한 그는 "종교 건축은 항상 '여기'라고 하는 장소성과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성을 통해 우리가 사는 시대의 시대정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형 속을 걷다>는 사무실을 이전하며 엄청난 분량의 건축 모형을 부순 후 '생각의 집'인 모형에 담긴 자신의 건축관과 건축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다. 1990년대 지은이가 국내 건축계에 던져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설계방법론인 '채 나눔'에 담긴 '불편하게 살자, 밖에서 살자, 널리 살자'는 건축관을 소개한다. 모형 속을 걷다 이일훈 지음 | 숲 | 9천5백원



금주의 베스트도서 10

책방 역시 아문 집게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옹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禪,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3	오재부지	한 경 해	반디미디어
4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 명 석	동승동
5	생활 속의 기도법	우통 스님	효림
6	임보리행문	산티 데 바	하얀연꽃
7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도솔
8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청화 스님	이른 아침
9	숨을 가져가질 쉬는 법	정건 스님	북다의 마을
10	길을 걷는 자 너는 누구냐	장휘옥 외	더북클럽

도서 안내: (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억길 무명의 계층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풀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건강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중지를 통달한 인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개 천 지 조 화 벽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미륵인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대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공명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제형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힘으로서 명상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원기력, 수인력, 대외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天氣道場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으로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입니다!

에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